

취약계층 노인의 경로식당 급식 서비스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침묵의 밥

서선희[†] · 유은주¹ · 안지윤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 ¹이화여자대학교 건강과학융합연구소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s of Congregate Meal Services from the Low-income Elderly

Sunhee Seo[†] · Eunju Yu¹ · Jiyeon Ahn

Dept. of Nutritional Sciences & Food Management,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20-750, Korea
¹Combination Research Center for Health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20-750, Korea

ABSTRACT

The elderly population in Korea is rapidly growing. As the population ages, meals become a greater concern, as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problems are directly affected by dietary life, especially for the lower-income elderly. Although the government provides support through a free congregate meal service, there is a lack of systematic management of this meal servic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xperience of the elderly, especially the symbolic meaning and issues regarding the congregate meal service in their dietary life, to establish strategies for improving congregate meal services. Qualitative data was collected from ten elderly receivers of meal services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data was analyzed using Colaizz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Overall, 90 significant statements, 13 formulated meanings, and five theme clusters were deduced. The five theme clusters for the importance of meal services to the elderly included the followings: "a real meal", "enjoyment of living", "maintenance of regular life", "place for social life" and "meal of silence". We found that the elderly regarded the congregate free meal service not only as meals to appreciate but also as a form of social life. Furthermore, the elderly did not typically express any complaints regarding congregate meal services because they are free. The results showed that it might be difficult to evaluate the quality of meal services based on the opinions of the service receivers. This study sugges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multilateral evaluation methods to reflect the needs of the elderly and to improve the congregate meal services at elderly welfare centers.

Key words : low-income elderly, qualitative approach, congregate meal service, welfare service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from the Seoul Community Lab of 'Seoul Creative Lab'.

접수일 : 2013년 6월 10일, 수정일 : 2013년 7월 2일, 채택일 : 2013년 7월 5일

[†] Corresponding author : Sunhee Seo, Department of Nutritional Sciences and Food Management,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Tel : 82-2-3277-4484, Fax : 82-2-3277-2862, E-mail : seo@ewha.ac.kr

서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매년 증가하여 2011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1.3%를 차지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26년에 20.8%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Statistics Korea 2011). 고령노인은 경제적 빈(41.0%)과 건강 문제(39.8%)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남성 고령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여성 고령자는 '건강문제'에 대해 더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Statistics Korea 2011). 노인들이 겪는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은 장보기, 식사준비 등을 포함하여 식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Jung 등 2003).

노인은 노화로 인한 구강상태 악화와 저작 기능 쇠퇴, 소화기관 및 신체 기능 약화와 미각 둔화 등으로 인해 올바른 식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고독감, 우울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 따른 식욕 감퇴와 식사량 감소도 노인들의 영양섭취상태를 저조하게 만드는 것으로 밝혀졌다(Lee 등 2007; Kwak 등 2008; Seo 2009). 노인들의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패턴 및 영양지식 부족도 영양상태 불량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Pirlich & Lochs 2001; Kim 등 2012). 노인들에게 식사와 음식은 노년기 건강관리와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며, 음식 만족도는 정신적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eo 등 2013). 이와 같이 노인의 식생활은 신체적 기능 및 정신적 건강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의 영양상태 개선 및 식생활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며, 특히 독거노인과 저소득층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노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영양상태 개선 및 식생활에 대한 관리가 더욱 요구된다.

취약계층노인을 위한 식생활 관련 복지 서비스로는 크게 경로식당 급식서비스와 가정배달급식(도시락, 밀반찬) 서비스가 있으며, 노인의 영양관리를 위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Mi-

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경로식당 무료급식 서비스는 정부가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결식 노인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가정배달 급식 서비스는 건강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도시락과 밀반찬을 제공하여 건강 유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방문과정을 통해서 건강상태를 확인함과 동시에 사회적 접촉을 유도하고 있다. 기업이나 일반 상점에서 후원 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필요한 곳으로 전달해주는 푸드뱅크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무료급식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저소득층노인은 17.2%이며, 일반 소득계층 이용률인 4.7%보다 높고, 노인식사배달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저소득층 노인은 5.6%, 일반 소득계층은 0.1%로 나타났다(Statistics Korea 2011). 가정배달급식 서비스를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0%로 나타났지만 무료급식 서비스와 식사배달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비율은 각각 13.3%, 13.4%로(Statistics Korea 2011), 이는 단순히 서비스 유무에 대한 홍보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노인 무료급식 제도는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낮고 급식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원 봉사자에 의해 주로 운영되어 서비스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단지 무료로 점심 한 끼를 제공한다는 정책적 사고를 뛰어넘어 무료급식 서비스의 양적,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 수혜자인 노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들의 경로식당 이용과 가정배달 급식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활용한 양적 연구들(Jung 등 2003; Suh 등 2003; Park 등 2010)이 진행되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는 파악되었지만 무료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수혜자 노인들의 급식 경험의 구체성을 포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인들의 무료급식 서비스 특히, 급식의 실질적 의미와 상징적 의미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

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무료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경험에 다가가는 탐색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인들의 무료 경로식당 이용 경험과 의미를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들의 식생활 복지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한 복지관 중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Y복지관을 주요 연구처로 삼았으며, 무료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전체 노인 대상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무료 경로식당 이용 대상자는 총 241명(남성 85명, 여성 156명)으로 60대가

13명, 70대가 129명, 80대 90명, 90대 9명으로 70대가 가장 많았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43명, 차상위 계층 노인이 20명, 저소득 노인이 178명으로 이용자 대부분이 저소득층 노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방법을 Fig. 1로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1.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를 위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관련 질문 및 대상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연구자 소속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50-1)을 받았으며 대상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 복지관 담당자의 소개로 Y복지관 무료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전체 노인 중 지속적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남녀 노인 각 5명씩, 10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또는 독거를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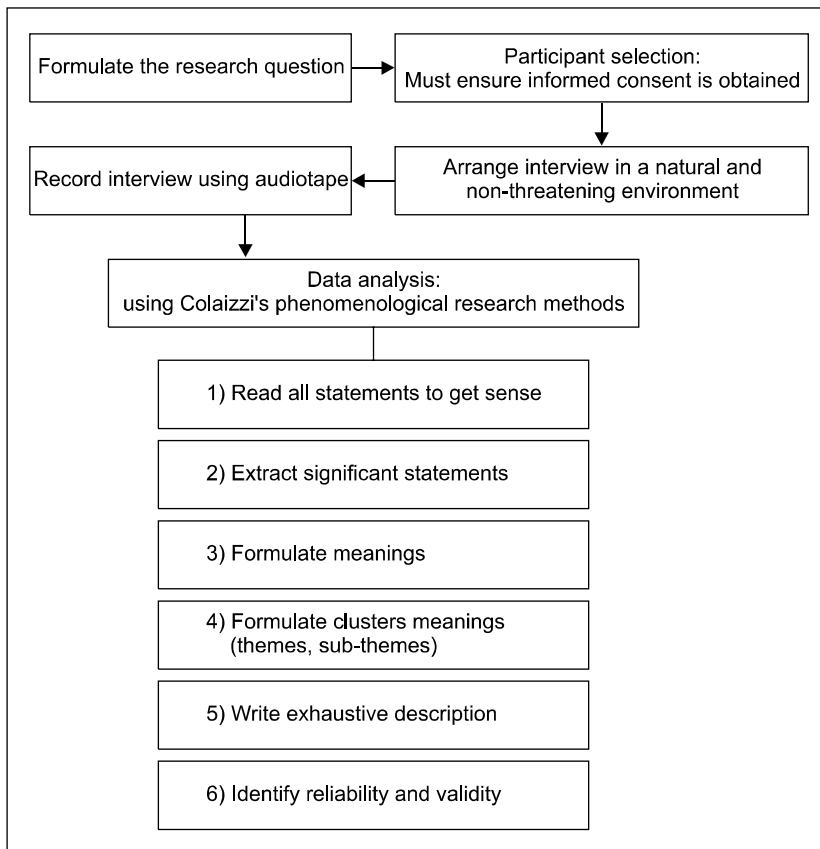


Figure 1. Methodological framework.

유로 무료급식서비스를 받고 있다. 연령대는 최저 68세부터 최고 85세로 노인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78.4세였다. 노인 참여자 중 3명은 독거노인, 3명은 가족이 있으나 별거 중이며 2명은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노인 참여자 10명 중 1명을 제외한 9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고 국민연금 수급자 3명, 공공근로에 종사하는 노인이 3명 있었다. 노인 참여자 10명 중 7명이 의치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치아 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참여자 중 2명을 제외한 8명이 경로식당을 이용한지 2년 이상 이 된 노인들로 평균적으로 4.5년 경로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자료수집: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인터뷰는 2013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데이터 수집 방법으로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기법을 활용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연구자가 특정 주제와 관련 있는 집단 구성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탐구하기 위해 소집단을 구성하여 면담하는 방식이다. 이 연구방법은 집단 참여자가 허용적이고 비위협적인 환경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하도록 자극하거나, 개별 면담에서 말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데 유용하다.

인터뷰는 복지관 상담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해 인터뷰 내용을 전부 녹음했으며, 녹취록을 풀어서 문서화했다. 연구수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자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으며,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와 원칙에 대해서도 전달했으며, 사례품도 같이 전달하였다.

3. 자료분석

노인들의 무료 경로식당 이용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했으며, 다음과 같이 콜라쥬가 개발한 6단계 분석 방법(Colaizzi 1978)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1단계에서는 전체적인 느낌(sense)을 얻기 위해 연구참여자의 경로식당 이용 경험이 담긴 모든 진술을 읽는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 공감하고자 이들의 진술이 담긴 원자료를 주의 깊게 반복하여 읽었다. 2단계에서는 연구 현상과 직접 관련된 진술, 구, 문장에서 주요 진술(significant statements)을 추출하며, 주요 진술 가운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진술은 삭제한다. 이와 같이 추출된 주요 진술은 분석을 위한 원자료가 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90개의 주요 진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Sex	Age (yrs)	Household structure	Welfare services	Status of dental health	Period of welfare services
1	Female	85	Alone	Basic old age pension	Dentures	2 years
2	Female	83	Alone	Basic old age pension	Dentures	5 years
3	Male	79	Separation	Basic old age pension, National pension, Public earned income	Implant	3 years
4	Male	76	Separation	Basic old age pension, National pension, Public earned income	His own tooth	2 years
5	Male	70	With spouse	Basic old age pension	Dentures	6 months
6	Female	81	Alone	-	Dentures	10 years
7	Female	78	Separation	Basic old age pension	Her own tooth	2 years
8	Female	68	With children	Basic old age pension	Dentures	2 months
9	Male	79	With spouse	Basic old age pension, Public earned income	Dentures	10 years
10	Male	85	With children	Basic old age pension, National pension	Dentures	10 years

이 추출되었다. 3단계에서는 각각의 주요 진술의 의미를 판독함으로써 의미를 구성(formulated meanings)한다. 의미의 구성이란 애초의 기술에 존재했던 다양한 맥락 속에 감춰진 의미들을 발견하고 끄집어내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13개의 구성된 의미를 도출했다. 4단계에서는 구성된 의미의 종합으로부터 주제군(clusters of theme)을 구성한다. 연구자는 직관과 분석기술을 이용하여 연구참여자의 기술에서 5개의 공통된 주제군을 도출해냈다. 5단계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통합하여 현상에 대한 최종적인 기술(exhaustive description)을 한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 범주를 통합하여 노인들의 경로식당 이용 경험에 대해 최종적으로 기술했다. 6단계에서는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주요 진술을 바탕으로 도출된 주제군과 내용에 대해서 연구자 4명이 최종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서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무료급식을 이용한 경험을 어떻게 의미화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5개의 주제군과 13개의 구성된 의미, 90개의 주요 진술을 도출하였다. 5개의 주제군은 각각 <밥다운 밥>, <생활의 낙>, <생활인의 감(感) 유지>, <사회생활의 장>, <침묵의 밥>으로 나타났다. 이를 Table 2로 정리하였다.

1. 밥다운 밥

노인들이 경로식당 밥을 밥다운 밥으로 인식하는 것은 이 밥이 “따뜻한 무료 밥상”이며, “고마운 밥 한 끼”, “가족 일손 덜어주는 밥 한 끼”, “굶주림”을 해결해주는 밥이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이와 같은 인식을 기반으로 경로식당 밥에 대해 매우 높은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이 밥을 자신들이 하루동안 먹는 밥 중 가장 ‘밥다운 밥’이라고 인식하였다. 무엇

보다 이 밥은 금방 지어서 따뜻한 밥이면서, 더구나 공짜 밥이고, 그래서 고마운 밥이고, 가족들의 일손을 덜어 주는 밥이며, 굶주림을 해결해주는 밥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저소득층 독거노인이었다. 무료급식을 이용함으로써 이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었으며, 식사 준비 및 뒷정리의 고단함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음식의 맛과 양, 위생상태, 친절도라는 측면에서 경로식당 밥이 가족들이 차려주는 밥상보다 더 정성스럽게 잘해준다고 느끼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돈도 안들고 마음도 편하고 이것이 달콤하구나, 정성껏 빠짐없이 다님, 맛 좋지요, 내 생각에는 100%가 다 가정집 보다 좋아요, 무료급식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보살님이 아주 음식을 신경 써서 잘해주셔요, 음식 잘해요, 난 여기 두둔할 사람도 아니지만 잘해요, 노인들한테 하는 대로 하려고 해요, 우선 따뜻하고..

고맙지요, 이래 해주니 고맙지요, 어느 며느리가 그렇게 잘해줘요, 그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주 깔끔하고 마누라가 해주는 것보다 좋아요, 아

Table 2. The experiential meaning of congregate meal service for elderly.

Theme	Sub-theme
A real meal	Valuable free meal
	Very appreciated meal
	Got less work to family
Enjoyment of living	Hunger relief
	Time killing
Maintenance of regular life	Pleasure of life
	People who have a certain place to go
Place for social life	Self-control
	Making friends
Meal of silence	Place for chatting
	Though being only a person having a free meal
	2% wishfulness
	I'll do it myself

주 음식을 신경 써줘요. 칭찬할만 합니다.

가족과 동거하거나, 설사 부부가 같이 생활하는 경우에도 경로식당 밥 한 끼는 매우 요긴했다. 세끼 밥을 며느리 밥 얻어먹기 부담스럽다, 병든 아내의 밥을 얻어먹기 힘들다는 등의 하소연을 하면서, 경로식당이 있어서 가족 일손을 덜어주게 되고, 부양을 받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을 덜 수 있다고 말한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나와서 며느리 도와주면 좋겠는데... 저번에는 한보름 나오지 말라고 해서 며느리한테 얻어먹는데, 진짜 그랬는데... 우리 부부가 나가면 며느리가 얼마나 편해요?

대부분의 노인들이 아침식사를 거르고 있었고, 결식이 일상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로식당의 무료 급식 한 끼는 이들의 유일한 식사인 경우가 많았다. 특히 남성독거노인의 경우가 그러했다. 담당 영양사 역시 이런 노인들의 처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경로식당 점심 한 끼가 이들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밥인지라, 양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일반인의 한 끼 정량을 600 Kcal로 볼 때, 경로식당 한 끼는 대개 800 Kcal라는 것이다.

저 잘 먹어요, 저는 여기서 주는 거 다 먹어요, 여기 와서 한 그릇 더 먹어요, 보편적으로 아침밥 안드시는 분이 있으시니(배식시간) 적합하지.

2. 생활의 낙

경로식당은 밥 한 끼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생활의 낙을 주는 곳으로 의미화되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경로식당은 오전시간을 때우기 좋은 거처였다. 갈 곳 없고, 할 일 없는 무료한 일상이자 보니 이곳은 노인들에게 아침에 눈뜨면 '갈 곳'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컸다. 출근하듯이 식당에 도착하여 본인 자리를 맡아두고 주변 사람들과 간식을 나눠먹고, 신문을 보면서 담소를 나눈다고 한다. 식당은 통상 11시 30분부터 배식을 하지만, 노인들의 직·간접적인 요구에 따라 8시 30분에 문을 연다. 이들은 집에서 혼자 외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이곳에 와서 여러 사람을 만나 왁자지껄 이야기 나누면서 재미를 느끼고, 고독감을 해소하는 등 정서적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전시간 때우러 오는 거예요, 밥보다도 시간 보낼 데가 없어요, 집에서 시간 보내기 그래서, 와서 이야기하고 시간 보내는거요, 여러분 만나고 얘기도 하고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재미있어요, 얘기도 하고 놀지요, 하여간 나오면 재미있어요, 그냥 학교 다니는 거 마냥, 아주 좋아요, 아이구, 나와야 좋지.

3. 생활인의 감(感) 유지

경로식당은 이들에게 "정치가 있는 사람", "자기 관리"의 이유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인의 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경로식당의 배식 시간에 맞춰 외출을 하는 것 자체가 규칙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지침이 된다고 말한다. 집에 있으면 마냥 게을러지고,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하루를 보내지만, 경로식당에 오면서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경로식당 출입을 통해 퇴직 이후 사회적 역할이 약화되면서 그로부터 발생한 정서적 결핍을 해소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을 즐겨 '학교 가는 학생 마냥'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경로식당에 오기 위해 정해진 시각에 일어나 몸단장하는 등 자기관리를 하고,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오고 감으로써 '정처(定處)가 있는' 사람임을 느끼면서 규칙적인 생활인의 감

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에 1시나 2시나 지하철 타고 오면 노인양반들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에 다니다가 모가지 떨어지면 이런데 와서 밥 먹고 시간 보내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여자들이 그런 속내 알아줍니까? 한 달에 돈 100, 200만원 보통 자식들이 용돈 주는데도 꼭 여기 다니는데... 집 사람도 이런데 다니는지 몰라요. 아침에는 설레지요, 아주 학교 가는 것 같아요. 시간보고 애들하고 같이 나와요. 우리 나가면 며느리가 친구가 올 수도 있고 전화라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닦는 것도 게을리 하고 옷 입는 것도 게을리 하고.. 이런 데라도 나오니까 차려입고 몸도 가꾸게 되고 깨끗이 하고 가야지, 저 울도 보고 냄새 나고 또 몸이 아파요

4. 사회생활의 장

경로식당은 “친구 사귀기”가 가능하고 서로 교류함으로써 “세상 공부”가 이루어지는 사회생활의 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함께 식사시간을 기다리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친구도 사귀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나누는 등 경로식당을 중심으로 사회생활의 장을 형성해 나가고 있었다. 대부분 독거노인이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별거하는 노인이 많아 이들은 사회적 교류가 극히 제한된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들에게 경로식당은 단지 밥 한 끼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었다. 경로식당에서 맺는 대인관계를 통해 사회적 고립과 소외감을 해결하는 등, 경로식당의 장소적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만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식당이 밥 한 끼를 넘어 취약계층 노인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유지라는 의미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제가 여기를 처음에 딱 와 가지고 모르는 사람

알게 되고 참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됩디다. 나이 먹고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지만, 계를 하려고 했는데, 안되더라구요, 지금 한 양반이 병원에 있거든. 그래서 전화하고 안오면 전화도 하고 그러지.

집에서 누가 세상 돌아가는 얘기 없잖아요, 여기 오면 서로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해주고... 텔레비전도 누가 집에서 보는 사람 없어요

5. 침묵의 밥

위에서 예시된 많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에게 경로식당 밥은 “공짜 밥 먹는 주제에”라는 자의식 때문에 설사 “2% 아쉬움”이 있다 해도 “내가 알아서” 먹는 침묵의 밥으로 경험되고 있었다. 이들이 경로식당 밥을 ‘고마운 밥’으로 인식하는 것은 이 밥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자원과 더불어 무료로 제공되는 밥이기 때문이다. 공짜라는 부담감으로 인해 이들은 이 밥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하고 있었다. 이런 인식에 따라 이들은 주어진 시스템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메뉴, 음식 맛, 조리방식, 배식 방법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주제 넘는 행동이며 염치 없는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밥은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침묵의 밥’이 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밥은 전적으로 제공자에 의해 그 질이 결정되는 상황에 놓여있으며, 급식 전반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역시 제공자의 의지에 달려있을 수밖에 없다.

(요구) 그거는 내가 내 자신을 용서를 못하지, 공짜로 먹는 주제에.. 내가 뭐 먹고 싶네, 나 이거 좋네, 이런 거 말 못하지, 노인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싱겁게 해주니까 할 수 없이 싱겁게 먹어요, 그런 말은 못하지, 그냥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가지, 그런 거 없지, 우리들을 위해서 해주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못하지, 그런 말은 못하지.

튀김 어디서 오는지 건지 저변에 아주 두껍게 나오는데.. 근데 이따금 국이 아주 매울 때가 있어, 여기저기서 아우 매워 할 때가 있어, 사람이 많은데 거기서 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잖아요

조금 간간하다 싶으면 내가 물을 타서 먹으면 돼 (요구하기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우리 자신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으니깐 내가 빨리 자리를 내줘야 한다는 생각이.. 빨리 먹는 습관이 되었어요

고 찰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취약 계층 노인들의 무료 경로식당 이용 경험과 의미를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대한 노인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노인들은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굶주림을 해결해주는 소중한 한 끼이자, 경제적 부담과 가족 일손을 덜어주는 따뜻한 고마운 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Nam 등(2000)의 서울·경기 지역 무료 경로식당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급식 만족도 조사에서도 5점 만점에 평균 점수가 4.16~4.58이었고, Jung 등(2001)이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관에서 무료급식 서비스 이용에 대한 노인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5점 만점에 평균 4.30의 높은 점수가 나왔다. 이처럼 기존 연구에서도 노인들이 무료급식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고,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으며 특별한 불만사항이 제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등 2003). 이는 노인들이 무료급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Nam 등 2000). 경로식당 이용자의 경우 취약 계층 및 독거노인이므로 아침 및 저녁 결식이 잦아, 경로식당의 점심 한 끼가 유일한 한 끼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Nam 등(2000)과 Suh 등(2003)이 서울 지역 노인 급식 프로그램 수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이

용하는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Choi 등(2005)이 대구 경산 유료 급식소와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는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유료 급식소를 이용하는 노인의 만족도가 75.3%,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는 노인의 만족도가 56.7%로 나와 유료 급식소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급식소를 만족하는 이유로는 유료 급식소의 경우 '맛이 있어서'가 가장 높았고 무료 급식소의 경우 '무료급식이라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무료급식의 경우 '무료'라는 이유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저소득층 취약 계층 노인이기 때문에 무료급식을 통해 '배고픔'이라는 생리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반적인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인들은 경로식당에서 제공되는 식사 한 끼를 하루 동안 자신이 먹는 밥 중 가장 '밥다운 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경로식당 밥은 갖 지어 제공되는 따뜻한 밥으로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과 가족의 일손을 덜어주는 매우 고마운 밥 한 끼였다. Kim 등(2003)이 주 1회 이상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도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 '따뜻한 점심을 먹기 위해서'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 '친구들과 어울리는 재미', '점심 준비가 귀찮아서'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연구에서도 경로식당에 대해 가장 만족하는 부분이 '따뜻한 점심'으로 나타났으며, 경로식당 이용 시 '고마움'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노인들이 따뜻한 음식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대다수가 경로식당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들에게 경로식당은 단순히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라는 차원을 넘어 오전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좋은 거처이며 삶의 재미를 느끼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

듯이 식당에 도착하여 함께 식사시간을 기다리면서 친구들과 간식을 나눠 먹거나 담소를 나누면서 모임의 기회를 형성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생활의 장이 되고 있었다(Nam 등 2000; Suh 등 2003). Jung 등(2001)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에게 급식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친구와 만나기 위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가 ‘친구’임을 알 수 있으며, 경로식당을 통해 폭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Kim 등 2003). 경로식당을 이용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모임 기회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며 친목 도모가 이루어질 수 있는 회식형 급식을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Suh 등 2003) 역시 본 연구참여자들이 경로식당에 부여하는 의미와 동일한 맥락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로식당이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노인들에게 사교의 장이 됨으로써 노인들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Nam 등 2000).

한편, 무료 경로식당 이용 노인들은 ‘무료급식 혜택을 받는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경로식당에서 제공되는 메뉴, 음식의 맛과 양, 조리방법, 배식 서비스에 대해서 일체의 불만 사항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었다. 가령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 경우, 물이나 소금 및 간장을 첨가하여 간을 조절해서 먹었으며, 질감이 단단한 음식이 제공될 경우에도 알아서 음식을 잘라 먹거나 아예 섭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급식이라는 인식에 짓눌려 있어 자신들의 욕구를 철저히 조절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노인들이 무료급식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급식 운영에 불편한 점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Nam 등(2000)의 연구와 비슷한 맥락을 이루고 있으나, 현행 서비스에서 이용자 노인의 위치가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노인들이 주체적으로 식생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급식 제공자에

의해 주어지는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미루어 볼 때 노인 무료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이용자 노인의 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평가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취약계층 노인의 무료 경로식당 이용 경험과 의미를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들의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에게 경로식당 점심 한 끼는 이들의 하루 식사 중 가장 “바다의 밥”으로 의미화되었다. 이 밥은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한 끼이자 경제적 부담감을 줄여주고 가족 일손을 덜어주는 따뜻하고 고마운 밥으로 인식되었다.
2. 노인들에게 경로식당 출입은 “생활의 낙”으로 의미화되었다. 경로식당은 갈 곳 없는 노인들에게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좋은 거처였으며, 사람들과 소통하며 재미를 느끼고 고독감을 해소하며 정서적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다.
3. 노인들에게 경로식당 출입은 “생활인의 감(感) 유지”를 가능하게 하였다. 급식 시간에 맞춰 오고 감으로써 자기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였다. 노인들은 경로식당 출입을 통해 퇴직 이후 사회적 역할이 약화되면서 발생하는 정서적 결핍을 해소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고 있었다.
4. 노인들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단순한 끼니 해결 차원을 넘어 사회생활의 장을 형성하는 공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식사 시간을 함께 기다리거나 식사를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친밀감을 나누는 등,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

다.

5. 노인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밥이라는 부담감으로 인해 이 밥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었다. 무료급식을 받는 처지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여 급식에 대해 불만 사항을 토로하지 않았으며 주어진 시스템에 적응하고 순응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경로식당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이용자인 노인들이 공짜밥이라는 부담으로 인해 식사와 서비스 질 전반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무료급식 운영의 객관적 평가와 질적 개선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이용자 노인의 욕구를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는 다각적 평가방법의 개발이 요구되며, 둘째, 급식 제공 시설을 다양하게 소규모화한다면 노인들의 접근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다음 사람을 위해 서둘러 식사를 해야 하는 압박감도 해소될 것이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존엄한 밥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리적인 환경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며, 식판과 수저 등 각종 식기도 보다 좋은 질로 구비될 필요가 있다. 열악한 환경에 질 낮은 플라스틱 그릇에 담긴 음식을 쫓기듯 먹어야 한다면 이는 ‘생존의 밥’에 불과하다. 존엄한 밥상을 차리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의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노인부부뿐 아니라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상의 이유, 가족구조 및 관계의 문제 등으로 무료 경로식당 이용하고 있었다. 의존적인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현실을 볼 때 노인 무료급식은 선별적 서비스를 지양해야 하며, 노인들의 보편적 욕구에 근거하면서 실천 가능한 급식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Choi BS, Kwon SY, Seo JY, Lee IS, Lee HJ (2005): Comparison of nutrient intake and meal service satisfaction of elderly at the local community centers: free and reduced meal service charge. *Korean J Community Nutr* 10(3):303-310
- Colaizzi P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a phenomenologist views it. In: Valle RS, King M, 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pp.48-71
- Jung HY, Yang IS, Lee HY, Chae IS (2003): Analyzing the current congregate meal service program for homebound elderly. *Korean J Community Nutr* 8(6):916-926
- Jung SD, Han KH, Park JS (2001): A study for food service utilization and servic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participan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47(11):310-333
- Kim MS, Lee G, Youn GH (2003): Gratuitous meal services for the elderly people.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12:49-66
- Kim Y, Seo S, Kwon O, Cho MS (2012): Comparisons of dietary behavior, food intake, and satisfaction with food-related life between the elderly living in urban and rural areas. *Korean J Nutr* 45(3):252-263
- Kwak KS, Bae YJ, Kim MH (2008): Nutritional status and dietary quality in the low-income elderly residing at home or in health care facilities. *J Korean Diet Assoc* 14(4):337-350
- Lee JH, Seong MG, Kang HK, Cho GS (2007): A study of oral health knowledge and status of the elderly in Ulju-gun.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7(4):281-286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elderly 2011. Available from: <http://www.mw.go.kr>. Accessed July 23, 2012
- Nam HW, Lee YM, Myung CO, Lee KW, Park YS (2000): Satisfaction of the elderly toward free congregate meal service. *Korean J Community Nutr* 5(1):74-82
- Park JY, Lee KE, Yi NY, Kwak TK (2010): Clients' handling and consumption of home-delivered meals at home and their perceptions on home-delivered meal services for older adults. *Korean J Community Nutr* 15(3):379-392
- Pirlich M, Lochs H (2001): Nutrition in the elderly. *Best Pract Res Clin Gastroenterol* 15(6):869-884
- Seo OS (2009): The study on eating habits of Korea elderly people. Masters degree thesis. Dongguk University. pp.7-97
- Seo S, Cho M, Kim Y, Ahn J (2013):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with food-related life, depression, isolation, social support, and overall satisfaction of life in elderly South Koreans. *J Korean Diet Assoc* 19(2):159-172

Suh HJ, Hong M, Jang YA, Kim BH, Lee HS, Kim CI (2003): Satisfaction measurement and needs analysis of the benefi-

ciaries of the elderly meal service program. *J Korean Diet Assoc* 9(2):114-127

Statistics Korea. Population projection and proportion by age groups. 2011. Available from: 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parentId=D. Accessed September 10, 2012